인도 분황사 보건소 개원…“지역사회 공헌” 발원

전국비구니회, 2월 27일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법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에 순례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이하 비구니회)는 2월 27일 인도 분황사에서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진,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건립불사를 후원한 백천문화재단 관계자와 현지 주민 등이 참석해 건립불사 마무리를 축하했다.

분황사 경내에 위치한 부다가야 보건소는 514m² (약 155평)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진료실과 치료실이 마련됐다. 2층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비구니회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반영,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취업훈련과 문화공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추후 한글학교와 재봉, 사찰요리 교실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 법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원력을 쌓아 세운 이 보건소는 2050년 무

백천문화재단 후원으로 건립
청소년 방과후 학습 지원 등
지역민 위한 문화공간 활용도
“약사여래불 상주 도량될 것”

렵에는 소형병원을 거쳐, 무료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으로 자라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작은 원력 하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뭇 생명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27일 인도 분황사에서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증일아함경〉의 한 소절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각 스님은 “부처님은 병자를 잘 간호하고 치료를 돕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을 쌓는 일이며,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간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다”며 “분황사 보건소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부다가야 성지에 세워진 조계종 최초 사찰 분황사에 주민과 순례자들을 위한 보건소를 개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게 돼 기쁨이 충만하기 그지 없다”면서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분황사 보건소 개원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약사여래불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비구니회원 사찰과 스님들의 정성을 모은 보건소 운영기금 3만 달러를 붓다팔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분황사 문화센터에 재봉틀 5대와 컴퓨터 2대도 기증했다.

동참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부다가야를 찾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부처님 가피를 내려달라”면서 “지역주민과 인연된 모든 세계인이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가 돼, 대자대비 광명 속에서 생명의 실상을 증득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자애경〉과 〈축복경〉을 합송하며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서원하는 것으로 개원식을 마무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후원 : 국민은행 208601-04-07393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02)3411-8103

포교원, 강원도 순례로 신행문화 확산 염원

3월 7일, 등명낙가사서 정동진역 포교 신도단체 100여명 동참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순례 프로그램을 통한 신행문화 확산을 염원하며 강원도 순례에 나선다.

포교원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포교 · 신도단체 대표 및 실무자 간담회’에서 3월 7일 진행될 강원도 순례 계획을 공개하고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포교원이 진행할 강원도 순례길은 ‘강릉 해맞이길’이다. 이는 포교원이 가장 최근 개발한 순례길로 보현사에서 인월사까지 걷는 제1코스와 등명낙가사서 정동진역까지 걷는 제2코스로 구성됐다.

3월 7일 걷게 될 순례길은 강릉 해맞이길 중 제2코스다. 관음보살의 전설이 깃든 등명낙가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후 등명해변, 정동진 해변, 정동진역까지 순례하게 된다. 약 3.7km로 2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순례에는 포교사단과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련, 전국여성불자회, 전법단 등 포교원 산하 포교 및 신도단체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 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2023년에는 ‘강릉 해맞이길’을 시작으로 전북과 충청을 포함한 7개 순례길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례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포교 콘텐츠로 활용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지속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해 전법 교화의 원을 세울 것”이라면서 “포교 및 신도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 순례가 또 하나의 수행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원은 2021년, 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첫해 ‘화엄사 어머니의 길’ ‘천은사 상생의 길’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제주 관음순례길’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수관음의 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을 선보였다.

임은호 기자



이병노 군수 “담양에 명상센터 건립 추진”

2월 27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담양군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2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명상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군수는 “건립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는 국비 신청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담양은 경관이 빼어나 바다가 없는 관광지자체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다. 이곳에 명상센터를 건립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것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은 역점사업으로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각지 거점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튀르키예 향한 ‘Never Ending’ 자비 손길

선운사 등 성금 기부 잇달아
열암곡 부처님 기금도 답지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기금도 답지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2월 28일 주지 경우 스님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자비 기금을 쾌척했다. 이날 주지 경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금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3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튀르키예 구호 기금으로 2000만원,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으로 1000만원이 기탁된다.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피해라는 아픈 소식을 듣고 함께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선운사는 본사 중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라며 “종단에서도 안심하고 든든하다. 세 번째 연임인 만큼 그간의 경험으로 잘 이끌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지진 소식을 듣고 선운사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아 참여했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월 28일 선운사 주지로 임명된 경우 스님이 튀르키예 구호 및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불암사 신도회는 2월 2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구호 기금 1000만원,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어제 희생자가 5만 명이 넘어간다는 기사를 보아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암사가 십시일반 손을 모아 지진피해 구호금을 비롯한 마애불 원력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 구호성금과 마애불 바로모시기 원력 동참을 위해 원로위원이 발걸음 한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자리에 함께 예방한 불암사 신도회원들에게는 “스님을 잘 모시고 보필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도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을 대신해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재무국장 현담 스님은 “종정 스님께서 문화신행 활동에 통도사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면서 “통도사 경내에 설치된 이웃나눔함의 모금액과 사중의 힘을 모아 큰 뜻에 따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3000만 원을 2월 28일 쾌척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신도들이 마음을 모았다”면서 “불자들의 원력이 모인 만큼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문빈정사 주지 석장스님**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는 6.25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형제와 다름없다. 그런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여러 곳에서 구호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중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빈정사가 기금을 전달했다. 마음을 내어준 문빈정사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2023년 대한불교원효종 분한신청(종도확인), 종회의원 선거인단 선출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법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결정(대구고등법원 2020라388 결정, 대법원 2021마5232 결정)에 따라 이종윤(원호) 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종단 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이 위촉, 임명한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선 종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에 종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종도 확인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확인업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 측의 모든 업무가 만료되었음에도 종도 스님으로서의 확인 절차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인된 종도 스님들로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예정인바,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확인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4월 3일(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위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범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3.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4.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5. 전화번호 : 임시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H.P 010-9388-3883, 010-5428-4040

제출 구비서류

1) 사진 3매(3×4) 사진은 원효종 가사와 장삼을 수하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상명세서(서식 총 – 2) 일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필수기재
   총무원에서 3회 이상 전화를 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사미.구족계첩, 도첩, 수계증, 승려증 사본 등 본 종단 종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주의사항

1.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총무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신상명세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수).

2023년 3월 2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임시총무원장 김두환(일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해원(해정)